

2025. 5. 29

경제脈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의 시사점

▲ 경제분석

Economist 이승훈

02. 6454-4891

seunghoon.lee@meritz.co.kr

- ✓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를 근거로 적용된 1) 보편관세, 2) 상호관세, 3) 펜타닐/국경 관련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시
- ✓ 이번 판결로 1)~3)에 해당되는 관세는 즉각 중단. 항소만으로 관세 부활되지 않음
- ✓ 경제전망의 upside risk, 미 인플레이션 위험 경감 요인, 달러 표시 자산가치 지지 요인

미국 국제무역법원, IEEPA에 의거해 부과한 보편/상호관세 위법임을 판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한국시간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 판시했다. 여기에는 1) 전세계 수입품 대상 10% 보편관세, 2) 11~50% 범위에서 결정되었던 국가별 상호관세, 그리고 3) 펜타닐/국경 등을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모두 해당된다.

CIT는 대통령이 IEEPA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결정을 하였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전체/일부가 미국 외부에 있는 비정상적이며 특별한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1701조), 외환거래, 은행거래, 통화 또는 유가증권의 수출입을 규제/금지할 수 있다(1702조). CIT는 법률에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재화수입을 규제할 권한까지는 위임 받았음을 인정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 제한이 없는 전세계 대상 보복관세(Worldwide and Retaliatory Tariffs)는 1702조에서 위임된 권한 범위를 벗어났으며, 2) 49년 연속 무역적자 및 펜타닐/국경 제재는 1701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3) IEEPA에서 부여된 권한은, 비상사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leverage 목적이 크다고 보아,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IEEPA 관세 중단: 글로벌 성장 전망 upside risk + USD표시 자산가치 지지 요인

판결문에서는 IEEPA에 근거하여 집행된 관세 명령들은 취소(vacated)되고 영구적으로 금지(permanently enjoined)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관세는 즉각 중단된다. 백악관이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가처분에 대한 잠정/최종 판결은 항소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미국 연방민사 소송규칙 62조 (c)).

따라서 1) 항소 과정에서 “CIT가 내린 명령 집행정지”가 승인되거나, 2) 연방항소법원(CAFC)이 백악관의 손을 들어 주지 않는 이상, IEEPA에 근거하여 발표된 상호/보편관세, 펜타닐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항소심 판결까지는 출석통지-서면/구두변론 등 절차가 수반되며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잔여기간 중의 실효관세율은 우리가 기존에 상정한 수준(상호관세 무기한 유예, 보편관세 10% & Section 232 관세 잔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률 전망의 upside risk이자, 미국 인플레이션 위험의 완화 요인으로 사료된다. 덧붙이자면, 이번 조치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간 법치주의 훼손 위험이 미국과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 악화를 부추긴 것과는 반대의 힘이 작용한 것이다. 이 맥락에서는 미국채 가격 및 달러 가치 지지(혹은 복원) 재료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